

2023. 5. 6.(토) 조간용
 이 보도자료는 5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

중대재해예방과장	김 경 원	2133-8200
시설안전관리팀장	윤 흥 렬	2133-8215
담당자	최 규 영	2133-8218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서울시 고척돔구장에 드론 띄워 지붕천장 등 접근 어려운 곳 점검

- '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' 일환...5.4(목) 고척돔구장 안전점검 실시
- 드론이 촬영한 영상 분석해 시설물 상태 확인, 인력점검 한계 보완
- 드론, 사물인터넷(IoT) 센서 등 시설물 점검에 첨단장비 적극 활용,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

- 서울시는 '2023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일환'으로 첨단 기술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고척돔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 -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'2023 집중안전점검' 기간으로 시는 총 2,38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이날 점검은 고척돔구장 지붕, 천장, 벽체 상부 구조물과 같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드론을 띄워 시설을 살피고, 이후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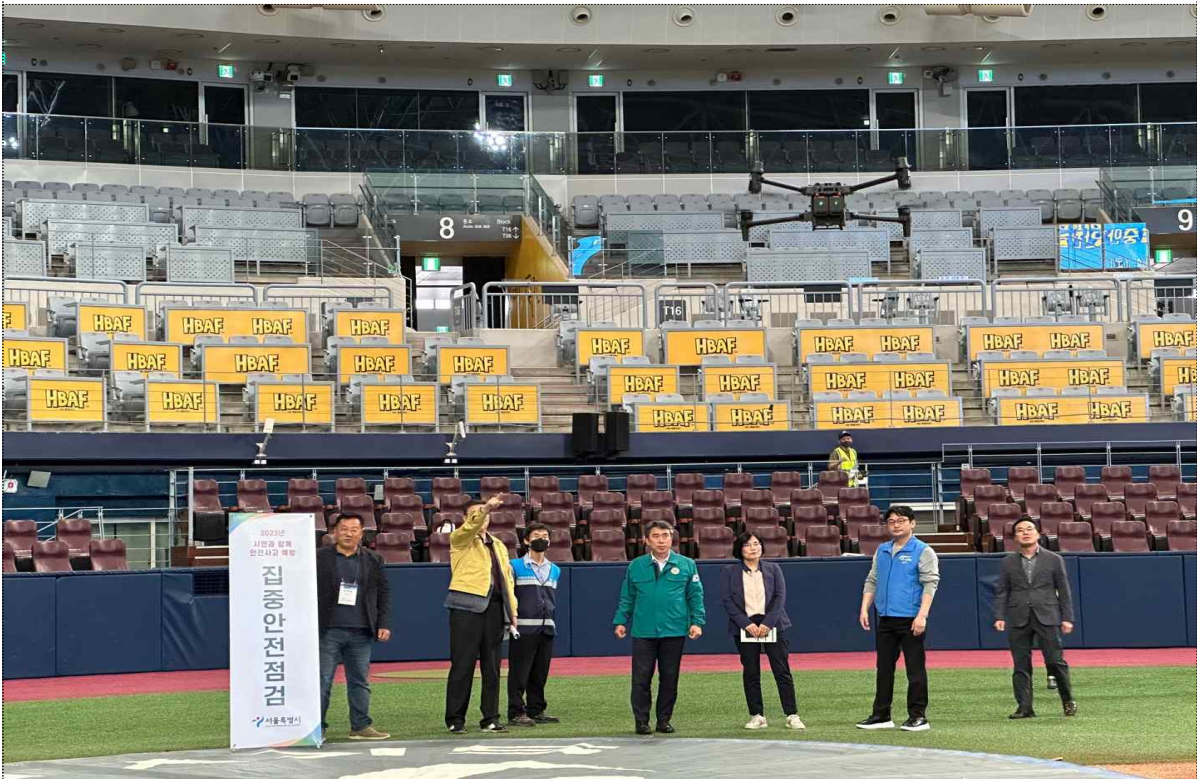
- 점검은 5월 4일 진행되었으며,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, 서울시 안전총괄실, 서울시설공단, 민간전문기관(사단법인 첨단기술 안전점검협회) 등이 참여했다.

- 시는 이번 ‘2023 집중안전점검’에서 드론, 사물인터넷(IoT) 센서 등 첨단 기술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앞으로 강서구 공산 진출램프 옆 비탈면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.

-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“인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첨단 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”이라며, “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생활 속 위험요인들을 꼼꼼히 살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드론으로 고척돔구장 시설물 점검



고척돔구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